



청결 농산물의 고장 음성

강 욱

자유기고가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군이다. 동쪽으로는 충주시, 서쪽으로는 진천군, 남쪽으로는 괴산군, 북쪽으로는 경기도 이천시, 서북쪽으로는 경기도 안성시와 경계를 이룬다. 야산과 구릉지가 많고 수자원이 풍부한 음성은 예로부터 기름진 옥토에서 농사가 잘되어 풍요롭고 인심 좋은 고장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의 자연 조건은 그리 좋은 편이 못 된다. 차령산맥과 노령산맥의 골짜기에 자리잡고 또 미호천의 상류를 끼고 있다는 점에서 서남쪽에 이웃한 진천군과 거의 같은 자연 조건을 지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진천군에 견주어 위의 산맥들이 본줄기에 더 가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진천군보다 들이 좁다.

본디 강원도의 오대산에서 갈라져 나온 차령산맥은 이곳에서는 워낙 더 낮아지면서 곳곳이 하천으로 끊기기 때문에 산맥이라고 보다 구릉의 연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산기슭에 평야를 만들어 놓는다. 이 구릉들 너머 서북쪽으로 펼쳐진 경기도 안성평야와 이곳의 진천평야가 그것이다. 음성군은 진천군과 함께 진천평야의 땅을 절반가량씩 나누어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음성은 신촌(新村)운동, 즉 새마을운동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음성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었으나 군의 서북쪽을 관통하는 중부고속도로의 건설로 1987년 이후 공업이 급격히 발달하여 중부권의 공업 핵심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는 청결고추, 인삼, 미백복숭아, 수박, 참외, 사과 등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양질의 농특산물을 많이 생산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음성군은 한때 고추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서 김치가 이른바 ‘금치’로까지 되었을 때에 서울의 알뜰하고 극성스러운 아낙네들이 관광버스까지 대절해 고추를 사러 들이닥치기도 했던 곳이다. 이곳의 고

추는 생산량이 많기도 하지만 품질이 좋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음성 청결고추’는 1968년 전국 최초로 비닐멀칭재배를 성공하였으며 오늘날 양질의 고추를 생산함으로써 1993년 전국에서 최초로 품질인증을 받았다. 매운맛과 단맛이 잘 혼합되어 있고 껍질이 두꺼워 가루가 많이 나오는 음성 청결고추는 또한 태양열로 건조해 매우 위생적이다. 음성군내전 지역에서 고르게 생산되나 특히 금왕, 소이, 원남, 맹동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음성 고추는 김장 및 고추장용 고추로 전국 제일의 명성을 얻고 있다.

천혜적인 기후조건에서 생산되는 음성 인삼은 조선 영조 때부터 재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의 6년산 홍삼은 인삼의 유효성분인 사포린 함량이 많아 약효가 뛰어나다. 음성사과는 수출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산이 많은 고지에서 무공해로 생산되는 음성사과는 색깔이 곱고 당도가 높으며 신맛이 적고 과즙이 많아 저장성이 매우 강하다.

감곡의 ‘미백복숭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성군 감곡면에서만 재배 생산되는데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으며 과피가 얇고 색상이 선명하다. 이 복숭아는 ‘88년 서울 올림픽’때 선수촌 공식납품 과일로 선정되었고 현재는 서울의 유명백화점에 주문 판매하고 있다.

‘맹동수박’은 음성군 맹동면의 광활한 평야에서 한여름 따가운 햇빛을 받고 생산된다. 맛과 당도가 뛰어난 맹동수박은 신장의 결석과 이뇨작용에 좋다. 상품성이 우수

하여 선주문 판매를 하고 있으며 맛과 당도가 떨어질 경우 2배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음성에는 민속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기와집 두 채가 있다. 바로 김주태 가옥과 서정우 가옥이다. 감곡면 영산리 잣말 마을에 있는 김주태 가옥은 중요민속자료 제14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집은 사랑채의 건축연대는 상량문에 따라 조선 고종 광무 5년(1901)임을 알 수 있으나, 안채는 19세기 중엽 정도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전통 가옥은 한때 충주목사를 역임한 박규희 가문이 장기간 거주하여 ‘박참판댁’으로도 불렸다.

비록 건물 건축연대는 오래 되지 않았으나 김주태 가옥은 공간의 짜임새가 돋보이는 대단히 아름다운 건물이다. 외부에 개방된 바깥마당을 면해서 당당하게 사랑채가 서있고 그 한 쪽 끝으로 꺾어져서 안채로 진입한다. 조그만 새마당을 설정하고 일각대문을 지나 안마당에 이른다. 또한 부엌을 지나면 안마당과 비슷한 크기의 뒷마당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공간의 구성은 우리 나라 전통 건축의 한 특징이다.

안채의 평면은 특이하게 T자 모양인데 경기지방의 사대부 집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즉 부엌, 안방, 옷방, 꺾어져서 2칸 대청, 건넌방을 두는 일반적 곁은자 평면에, 옷방 동쪽으로 다시 뒷마루, 뒷방을 배치하여 안방마님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사랑채는 일(一)자 평면으로 일반적인 구성이다. 다만 이와 같이 높은

축대 위에 가리는 시설 없이 당당하게 세우는 것은 지체가 높은 사대부집이나 연대가 떨어지는 집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서정우 가옥도 감곡면 영산리 공산정 마을에 있는데 중요민속자료 제143호로 지정되어 있다. 건축 연대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측되며 1924년에 보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전체적으로 ㄱ자 모양의 구성이지만 원래의 사랑채는 일(一)자 집이었으며, 북쪽으로 대문간을 잇달아 연결해서 곱은자 집으로 만들었다. 기타 헛간채는 근래에 지어진 임시 시설물이다.

생극면 방축리 능안마을에는 고려말과 조선 초기 대학자이며 정치가인 양촌 권근(陽村 權近)과 그의 아들 권제, 그의 손자 권남의 묘소가 있다. 권근은 어려서부터 명석하고 부지런했으며 18세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너무 어렸지라 왕이 “나이 어린 사람이 무슨 과거를 보느냐”고 질책하자 목은 이색이 “이 사람은 그릇이 커서 장차 크게 쓰일 인물이니 나이를 생각하지 마옵소서”라며 적극 만류하여 급제를 하였다고 한다.

권근은 예문관 대제학, 대사성, 의정부 찬성사, 세자좌, 빈객,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사병폐지를 주장하고 왕권 확립에 큰 공을 세웠다. 그는 태종 9년(1409)에 사거하여 경기도 광주에 묘를 썼다가 세종 22년(1440)에 방축리 능안마을로 이장해 왔다.

음성군의 문화유적으로는 이밖에도 소이면 비산리의 미타사 마애여래입상, 음성읍 읍내리의 오충모전석탑 및 삼층석탑, 음

성향교, 삼성면 용성리의 운곡서원, 원남면 조촌리의 태교사가 보존되어 있다. 또한 6.25전쟁 때 국군이 최초로 승리한 음성전투의 격전지인 감우제에 무극전적국민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다.

전통적 농경지역인 음성에서는 갖가지 문화행사와 지역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설성문화제’는 음성군의 대표적인 향토 축제로 금년에 제21회를 맞이했다. ‘설성문화제’에서는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윷놀이, 팽이치기 등 각종 전통놀이와 옛 장터 풍물 공연, 페이스페인팅, 허수아비 만들기, 고추아가씨 및 미스터고추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무영제’는 음성지역 출신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민문학가인 이무영(李無影)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문학인 저변 확대를 위하여 매년 4월에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무영백일장, 시낭송회, 이무영 선생 유품전시회, 추모제, 생가 방문, 무영문학상 시상 등을 하고 있다.

‘음성고추축제’는 매년 9~10월경 고추왕 선발, 고추따기, 고추음식 경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로 펼쳐진다. 이밖에도 ‘감곡복숭아축제’, ‘맹동수박축제’, ‘대소수박축제’ 등이 열려 음성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음성의 별미 음식으로는 ‘닭죽마을’이 유명하다.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에 위치한 향토음식 마을로 어린 닭과 찹쌀, 인삼, 대추, 엄나무 등을 재료로 담백한 닭죽과 찹쌀 누룽지를 대접하는 향토 음식이다. 